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479>

JCCT 2023-11-56

# 간호대학생의 MBTI 지표에 따른 갈등해결유형의 차이

## Differences in Conflict Management Style according to MBTI Indicators of Nursing Students

신수정\*

Su Jeong Shi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갈등관리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MBTI지표 중 에너지 방향에서 I는 E보다 회피가 높았다( $t=-3.776, p<0.01$ ). 의사결정기능의 경우 F가 T보다 양보( $t=-3.478, p<0.01$ )와 회피( $t=-3.389, p<0.01$ )가 높았고, T가 F보다 지배가 높았다( $t=2.070, p<0.5$ ). 외부생활 대처양식의 경우 J가 P보다 협력( $t=2.756, p<0.01$ )과 타협( $t=2.044, p<0.5$ )이 높았다. MBTI의 심리기능유형에서는 NF형이 ST형보다 양보가 높았고( $F=4.174, p<0.05$ ), SF형이 ST형보다 회피가 높았다( $F=4.202, p<0.05$ ). MBTI 의사결정기능 유형과 외부생활 대처양식을 조합해서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FJ형이 FP형 보다 협력이( $F=2.907, p<0.05$ ), FJ형이 TP형보다 양보가( $F=4.662, p<0.01$ ), FJ형이 TJ형보다 회피가 높았다( $F=3.327, p<0.05$ ). MBTI의 태도지표는 EJ형이 EP형 보다 협력이 높았고( $F=2.817, p<0.05$ ), IP형이 EP형 보다 회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F=4.551, p<0.01$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MBTI 의사결정기능 유형(F,T)과 외부생활대처양식(J,P)을 조합해서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수를 확대한 MBTI 성격유형별 갈등관리유형에 대한 연구, MBTI 지표 및 성격유형별 갈등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갈등관리유형, MBTI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determine differences in conflict management types according to MBTI preference indicators among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from August 30 to September 30, 2023.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s.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MBTI indicator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flict management types, 'I' had higher avoidance than 'E' in the energy direction ( $t=-3.776, <0.01$ ). In the case of decision-making function, F had higher concession ( $t=-3.478, <0.01$ ) and avoidance ( $t=-3.389, <0.01$ ) than T, and T had higher dominance than F ( $t=2.070, <0.5$ ). In terms of external life coping style, J had higher cooperation ( $t=2.756, <0.01$ ) and compromise ( $t=2.044, <0.5$ ) than P. In MBTI's psychological function types, the NF type had higher concessions than the ST type ( $F=4.174, <0.05$ ), and the SF type had higher avoidance than the ST type ( $F=4.202, <0.05$ ).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conflict management types by combining the MBTI decision-making function type and external life coping style showed that the FJ type was more cooperative than the FP type ( $F=2.907, <0.05$ ), and the FJ type was more cooperative than the TP type ( $F=4.662, <0.01$ ), and the FJ type had higher avoidance than the TJ type ( $F=3.327, <0.05$ ). MBTI's attitude index showed that the EJ type had higher cooperation than the EP type ( $F=2.817, <0.05$ ), and the IP type had significantly higher avoidance than the EP type ( $F=4.551, <0.01$ ).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differences in conflict management types by combining MBTI decision-making function types (F, T) and external life coping styles (J, P), which have not been studied in Korea to date. In the follow-up study, we propose research on conflict management types by MBTI personality type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expanding the number of subjects, development of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by MBTI indicators and personality types, and analysis of program effectiveness.

**Key words** : Conflict Management Style, Nursing, Student, MBTI

\*정회원,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1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hgi96@hanmail.net

Dept. of Nursing, Kojé. Univ, Korea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게 될 간호대학생은 직장 선후배, 의사, 보호자, 환자, 타부서간의 밀접한 업무를 통해 많은 갈등상황에 처하게 된다[1]. 갈등은 간호사의 조직몰입과[2], 사직동기가 되어 간호인력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전 자신의 갈등관리능력을 인지하여 갈등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갈등이란 생각이 서로 맞지 않거나 반대되는 욕구의 결과에서 나온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4]. 개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갈등관리유형을 가지고 있다[4]. Rahim(1983)은 갈등관리유형을 경쟁, 양보, 협력, 타협, 회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4]. 갈등관리유형은 좋거나 나쁜 것은 없고, 각 유형은 상황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5].

다섯 가지 갈등해결 유형 중 경쟁은 타인보다 개인의 이익을 충족하려고 하고 양보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다[4]. 협력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충분한 이익을 찾는 행동이며 타협은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서로 교환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욕구를 존중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다[5]. 회피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 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려는 조급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4].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여 실천해야 한다[6]. 그러나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성격적 원인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갈등관리유형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갈등상황에 적절한 갈등관리유형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7].

성격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갈등관리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성격유형에 MBTI가 있다. MBTI는 융의 이론[8]을 바탕으로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정신적 에너지 방향(Extroversion: E, Introversion: I), 정보인식기능(Sensing: S, Intuition: N), 판단기능(Thinking: T, Feeling: F),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반응(Judging: J,

Perceiving: P) 4가지 선호경향에 의해 16가지 성격으로 나뉜다[8]. 선호경향이란 선취적으로 개인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선호하는 행동과 생각의 경향을 말한다[7]. MBTI는 16가지 성격유형 외에 에너지의 방향과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을 결합한 태도지표(EJ, EP, IJ, IP), 인식과 판단기능을 결합한 정신심리기능(SF, ST, NT, NF)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타고난 심리적 경향과 행동패턴을 알 수 있다[7]. 심리기능은 개인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고유한 반응양식을 보이게 하는 내재적 심리경향성이다[8].

Park(2017)은 행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의 태도지표 EJ, EP, IJ, IP와 정신심리기능 SF, ST, NT, NF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하였고 태도지표와 정신심리기능 각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9]. 유일하게 간호대학생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2002)의 연구에서는 EI, SN, TF, JP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한 결과 EI가 갈등관리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10].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Kim(2007)은 외향과 내향형(E,I), 감정과 직관형(S,N), 사고와 감정형(S,F), 판단과 인식형(J,P)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한 결과 외향형과 내향형(E,I), 판단과 인식형(J,P)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감정과 직관(S,N), 사고와 감정(T,F)은 갈등관리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6]. 지방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ark(2019)의 연구에서는 외향과 내향형(E,I), 감정과 직관형(S,N), 사고와 감정형(T,F), 판단과 인식형(J,P), 태도지표(EJ, EP, IJ, IP)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하였고 태도지표를 제외한 지표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11].

MBTI의 다양한 지표는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7]되고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MBTI의 태도지표[9,10], 정신심리기능[9], 4가지 선호지표[10]와 갈등관리유형 차이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의 지표와 갈등관리유형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향과 내향형(E,I), 감정과 직관(S,N), 사고와 감정(T,F), 판단과 인식(J,P), 정신심리기능(SF, ST, NT, NF), 태도지표 외에도 국내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는 3,4지표(TJ, TP, FJ, FP 유형)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차이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지역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1,2,3,4학년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7로[12] 산출하였다. 검정력(1-β) .80, 유의수준(α)은 .05, 효과크기(effect size) .3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 수는 최소 8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수는 총 111명으로 1학년 25명, 2학년 24명, 3학년 32명, 4학년 30명이었다. 111명 모두 누락된 응답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111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MBTI

본 연구에서는 Myer-Briggs Type Indicator(MBTI)를 Kim과 Shim이[13] 한국어로 개발한 94문항 Form M를 사용하였다. MBTI는 2가지 반대되는 대극으로 구성된 4가지 선호지표로 각 개인의 선호경향성을 나타낸다. 4가지 선호지표는 정신적 에너지 방향, 정보인식기능, 의사결정 기능, 외부세계 대처양식이다. 정신적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과 내향형(E,I)으로 구분되며, 정보수집기능은 감각형과 직관형(S,N), 의사결정기능은 사고형과 감정형(S,F)으로 구분한다. 외부세계 대처양식은 판단형과 인식형(J,P)으로 구분된다.

MBTI 성격유형은 4가지 대극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네 단어로 나타내는 16개의 성격유형을 나타낸다. 그 외 MBTI는 심리기능, 태도지표로도 구분할 수 있다. 심리기능유형은 SF형(Sensing Feeling), ST형 (Sensing Thinking), NT형(iNtuition Thinking), NF형(iNtuition Feeling)으로 분류된다. 태도지표는 EJ, EP, IJ, IP 유형이다.

#### 2) 갈등관리유형

갈등관리유형은 간호사가 지각한 관리자의 갈등관리유

형을 측정하기 위해 Rahim[4] 의해 개발된 ROCI-II 척도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14]. 총 26문항, Likert 의 4점 척도이다. 갈등관리유형에 대해 협력형(1-6), 타협형(12-16), 양보형(7-11), 지배형(22-26), 회피형(17-21)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Kim과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전체 .79, 협력형 .87, 순응형 .86, 타협형 .76, 회피형 .86, 지배형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전체 .82, 협력형 .92, 순응형 .88, 타협형 .89, 회피형 .83, 지배형 .85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설문 조사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 절차, 설문조사 결과는 익명 처리되고 코드화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설문조사 중에도 연구철회 및 연구 참여 시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문조사에 동의한 재학생들은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 후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시간은 25분정도 소요되었다.

####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과 지표,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MBTI 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s를 시행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MBTI에 의한 대상자의 성격유형, 심리기능, 3,4코드, 태도지표

조사대상자의 성격유형은 ISTP형이 16명(11.4%)으로 가장 많았고, ISTJ형 14명(12.6%), ISFJ형 11명(9.9%), ISFP형 11명(9.9%), INFP형 11명(9.9%)로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 심리기능 유형은 ST형 45명(40.5%), SF형 28명(25.2%), NF형 26명(23.4%), NT형 12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3,4코드는 FP형 34명(30.6%), TP형 33명(29.7%), TJ형 23명(20.7%), FJ형 21명(18.9%) 순 이었다. 태도지표는 IP형이 40명(40.5%)

EJ형 13명(11.7%)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MBTI에 의한 대상자의 성격유형, 심리기능, 태도지표, 3.4code,

Table 1. Personality types, Function, Attitude Indicators of subjects, 3.4code by MBTI (N=111)

Variable	Categories	n	%
16 types of MBTI	ISTJ	14	12.6
	ISFJ	11	9.9
	INFJ	5	4.5
	INTJ	2	1.8
	ISTP	16	14.4
	ISFP	11	9.9
	INFP	11	9.9
	INTP	8	7.2
	ESTP	10	9.0
	ESFP	3	2.7
	ENFP	6	5.4
	ENTP	1	0.9
	ESTJ	6	5.4
	ESFJ	2	1.8
	ENFJ	4	3.6
	ENTJ	1	0.9
Function of MBTI	ST	45	40.5
	SF	28	25.2
	NF	26	23.4
	NT	12	10.8
Attitude Indicators of MBTI	IJ	32	28.8
	IP	40	40.5
	EP	21	18.9
	EJ	13	11.7
3.4code of MBTI	TJ	23	20.7
	TP	33	29.7
	FJ	21	18.9
	FP	34	30.6

으로 가장 많았고, IJ형 32명(28.8%), EP형 21명(18.9%),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 유형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여학생은 85명(78.4%)으로 남학생 24명(21.6%) 보다 더 많았다. 학년은 저학년 49명(44.1%), 고학년 62명(55.9%)이었다. 성적 평점 평균은 3.5점 이상이 57명(51.4%)으로 3.5점 미만인 54명(48.6%)보다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 유형(협력, 양보, 타협, 회피, 지배) 차이를 보면 학점에 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학점이 3.5 이상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타협(t=2.43, p<0.01)이 높았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Conflict management sty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nflict management style				
			Integrating	Obliging	Compromising	Avoiding	Dominating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Female	85 (78.4)	3.77±0.74	3.66±0.77	3.71±0.66	3.27±0.76	3.09±0.83
	Male	24 (21.6)	4.02±0.57	3.66±0.58	3.82±0.61	3.23±0.83	3.14±0.71
	t(p)		-1.516 (0.133)	0.012 (0.980)	-0.675 (0.501)	0.226 (0.822)	-0.296 (0.768)
Grade	저학년	49 (44.1)	3.94±0.71	3.79±0.79	3.64±0.71	3.21±0.81	3.12±0.82
	고학년	62 (55.9)	3.74±0.70	3.55±0.67	3.81±0.58	3.30±0.747	3.08±0.80
	t(p)		1.439 (0.153)	1.683 (0.093)	-1.386 (0.169)	-0.599 (0.551)	0.233 (0.816)
School record	≥3.5	57 (51.4)	3.93±0.66	3.62±0.67	3.88±0.63	3.22±0.83	3.23±0.79
	<3.5	54 (48.6)	3.72±0.75	3.70±0.79	3.59±0.64	3.30±0.71	2.95±0.81
	t(p)		1.538 (0.127)	-0.608 (0.545)	2.439 (0.016)*	-0.577 (0.565)	1.807 (0.074)

\*\* : p< 0.01, \* : p< .05

3. 갈등관리유형의 평균

갈등관계 유형별 정도는 5점 만점에 협력형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협형 3.74점, 양보형 3.66점, 회피형 3.26점, 지배형 3.10점 순이다<표 3>.

표 3. 갈등관리유형의 평균

Table 3. Mean of Conflict management style(N=111)

Variable	Categories	M±SD
Conflict management style	Integrating	3.83±0.71
	Obliging	3.66±0.73
	Compromising	3.74±0.65
	Avoiding	3.26±0.77
	Dominating	3.10±0.81

4. 연구대상자의 MBTI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

MBTI 지표에 따른 각 갈등 해결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4>과 같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 방향(EI)의 경우 내향형(I)은 외향형(E)보다 회피(t=-3.776, p<0.01)가 높았다. 정보인식기능 유형(SN)의 경우 각 갈등관리 유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결정기능 유형(TF)의 경우에는 감정형(F)이 감각형(T)보다 양보(t=-3.478, p<0.01)와 회피(t=-3.389, p<0.01)가 높았고, 감각형이(T) 감정형(F)보다 지배(t=2.070, p<0.5)가 높았다. 외부생활 대처양식(JP)의

경우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협력( $t=2.756, p<0.01$ )과 타협( $t=2.044, p<0.5$ )이 높았다.

다음으로 MBTI의 심리기능유형에서는 NF형이 ST형보다 양보( $F=4.174, p<0.05$ )가 높았고, SF형이 ST형보다 회피( $F=4.202, p<0.05$ )가 높았다.

MBTI의 세 번째(의사결정기능 유형), 네 번째 코드(외부생활대처양식)를 조합해서 갈등관리유형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협력, 순응, 회피에서 차이를 보였다. 협력( $F=2.907, p<0.05$ )에서는 FJ형이 FP형보다, 양보( $F=4.662, p<0.01$ )에서는 FJ형이 TP형 보다, 회피( $F=3.327, p<0.05$ )에서는 FJ형이 TJ형보다 높았다. MBTI의 태도는 협력, 회피에서 차이를 보였다. 협력( $F=2.817, p<0.05$ )에서는 EJ형이 EP형보다, 회피( $F=4.551, p<0.01$ )는 IP형이 EP형보다 높았다.

표 4. 대상자의 MBTI의 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Conflict management style according to Indicators of MBTI (N=111)

Variable	Categories	Conflict management style				
		Integrating	Obliging	Compromising	Avoiding	Dominating
		M ±SD	M ±SD	M ±SD	M ±SD	M ±SD
energy direction	E	3.87±0.96	3.55±0.86	3.76±0.81	2.86±0.64	3.21±0.85
	I	3.81±0.60	3.71±0.67	3.73±0.56	3.44±0.76	3.05±0.79
	t(p)	0.345 (0.732)	-1.082 (0.282)	0.252 (0.802)	-3.776 (0.000)*	0.994 (0.354)
Information recognition function	S	3.79±0.71	3.60±0.73	3.74±0.69	3.25±0.77	3.08±0.85
	N	3.89±0.71	3.77±0.74	3.74±0.57	3.27±0.79	3.14±0.73
	t(p)	-0.680 (0.498)	-1.120 (0.265)	0.001 (0.999)	-0.127 (0.899)	-0.339 (0.735)
decision-making function	T	3.82±0.72	3.44±0.74	3.69±0.70	3.03±0.78	3.25±0.73
	F	3.83±0.70	3.90±0.65	3.78±0.59	3.51±0.69	2.94±0.85
	t(p)	-0.088 (0.930)	-3.47(0.001)**	-0.69(0.486)	-3.38(0.001)**	2.070 (0.040)*
How to cope with life outside	J	4.05±0.52	3.79±0.64	3.89±0.56	3.24±0.79	3.20±0.74
	P	3.68±0.78	3.58±0.78	3.64±0.68	3.27±0.77	3.03±0.84
	t(p)	2.756 (0.004)*	1.442 (0.152)	2.044 (0.043)*	-0.232 (0.817)	1.124 (0.263)

Function of MBTI	STa	3.86±0.76	3.46±0.74	3.71±0.76	3.03±0.78	3.25±0.75
	SFb	3.70±0.63	3.84±0.67	3.78±0.57	3.61±0.62	2.81±0.94
	NFc	3.98±0.75	3.96±0.63	3.78±0.61	3.38±0.75	3.08±0.75
	NTd	3.67±0.56	3.35±0.81	3.63±0.46	3.02±0.84	3.27±0.72
	F(p) Scheffé	0.907 (0.441)	4.174 (0.008)* * a<c	0.204(0.893)	4.202 (0.008)* * a<b	1.944 (0.127)
Attitude Indicators of MBTI	EJa	4.27±0.58	3.82±0.75	4.08±0.63	2.85±0.56	3.29±0.82
	EPb	3.63±1.01	3.41±0.92	3.56±0.88	2.87±0.72	3.16±0.91
	IJc	3.92±0.44	3.82±0.57	3.76±0.49	3.43±0.80	3.16±0.69
	IPd	3.72±0.69	3.62±0.72	3.70±0.61	3.43±0.74	2.97±0.83
	F(p) Scheffé	2.817 (0.043)* * b<a	1.541 (0.208)	1.777 (0.156)	4.551 (0.005)* * b<d	0.691 (0.560)
3.4E of MBTI	TJa	4.01±0.54	3.59±0.61	3.85±0.49	2.97±0.79	3.37±0.58
	TPb	3.70±0.83	3.33±0.83	3.59±0.82	3.08±0.79	3.16±0.84
	FJc	4.12±0.46	4.01±0.62	3.95±0.62	3.51±0.72	3.03±0.87
	FPd	3.64±0.76	3.82±0.66	3.66±0.54	3.47±0.70	2.90±0.84
	F(p) Scheffé	2.907 (0.038)* * d<c	4.662 (0.004)* * b<c	1.703 (0.171)	3.327 (0.022)* * a<c	1.655 (0.181)

\* :  $p<0.01$ , \* :  $p< .05$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확인하여 갈등관리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갈등관리유형은 협력 3.83점, 타협 3.74점, 양보 3.66점, 회피 3.26점, 지배 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243명을 대상으로 한 Jang과 Lee(2021)의 연구에서는 양보 3.57점, 타협 3.39점, 협력 3.37점, 회피 3.02점, 지배 2.41점 순이었다[15].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2021)의 연구를 살펴보면 협력 3.63점, 양보 3.57점, 타협 3.54점, 회피 3.02점, 지배 2.81점 순으로 선행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16].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 대상자 수와 대상자가 상이하야 발생한 차이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의 갈등관리유형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갈등관리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학점이었다. 학점이 3.5이상인 경우 3.5미만보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 타인의 존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타협이 높았다. 간호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한 최 등(2017)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는 갈등관리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과 갈등관리유형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극히 미비하여 성격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갈등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연구대상자의 MBTI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에너지 방향(E,I)의 경우 내향형(I)은 외향형(E)보다 회피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2)의 연구결과[10], 지방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ark(2019)의 연구결과[11]와 동일하다. 외향형은 외부활동에 적극적이며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반면 내향형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갈등상황에서 회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3].

정보인식기능 유형(S,N)의 경우 각 갈등관리 유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직관형(N)은 경쟁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10] Baek(2004)의 연구에서는 직관형(N)은 타협과 관련이 있었다[18].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며 각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가 있어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결정기능 유형(T,F)의 경우 감정형(F)이 사고형(T)보다 양보와 회피가 높았고, 사고형(T)은 감정형(F)보다 지배가 높았다.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사고형(T)만 타협과 협력과 유의하였고[10], Baek(2004)의 연구에서 감정형(F)은 수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8]. 양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수용도 자신의 욕구는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감정형(F)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연결과 조화, 우호적 협조를 중시하며 사람, 관계중심이기 때문에[13] 갈등상황 발생 자체가 힘들어 양보와 회피가 높을 수 있다. 사고형(T)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고 논리적, 분석적, 이성적, 객관적인 결정을 선호하므로[13] 자연스러운 비평과 주장으로 감정형(F)보다 경쟁과 지배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생활 대처양식(J,P)의 경우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양보와 협력이 높았으며 Park(2002)의 연구에서 판단형(J)은 타협이 높아[10]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결과는 차이가 있다. 인식형(J)은 결론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유연성과 개방성을 선호하여[7] 일의 마무리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판단형(J)은 체계적이며 신속한 결론을 선호하여[13] 갈등 상황에서 회피와 지배보다는 양보와 협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MBTI의 심리기능유형에서는 NF형이 ST형보다 양보가 높았고, SF형이 ST형보다 회피가 높았다. 심리기능 유형은 정보인식기능과 의사결정유형의 조합이다.

Park(2017)의 연구에서는 행정학부 학생 10명과 대화를 통해서 성격과 갈등관리유형을 파악한 결과 NF는 협력, SF는 양보, ST는 경쟁, NT는 회피 유형에 가깝게 나타나[9]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NF형은 정보인식에는 직관을, 의사결정 시에는 감정을 선호하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9] ST유형보다는 양보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ST형은 정보를 인식할 때는 사실적, 현실적 감각에 근거하고 의사결정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 개관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13] 반면 SF형은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으로 사람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린다[9]. SF형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상황을 회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MBTI의 세 번째 코드 의사결정기능 유형(F,T)과 네 번째 코드 외부생활대처양식(J,P)을 조합해서 갈등관리유형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감정적 판단형(FJ)형이 감정적 인식형(FP)보다 협력이 높았다. 양보는 감정적 판단형(FJ)이 사고적 인식형(TP) 보다, 회피에서는 감정적 판단형(FJ)이 사고적 판단형(TJ)보다 높았다. MBTI 3,4코드를 조합하여 갈등관리유형과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에서 FJ가 FP보다 협력과 타협이 높고 FJ가 TJ보다 회피가 높은 결과는 T,F와 J,P 각각에 따른 갈등관리유형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에서 감정형(F)은 양보와 회피가 높았고, 판단형(J)은 양보와 협력이 높았다. 그러나 FJ는 협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유형과 외부생활대처양식이 상호작용하여 갈등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MBTI의 태도지표는 EJ형이 EP형보다 협력이, IP형이 EP형보다 회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유의미하게 양보와 협력이 높았다. E(외향형)와 I(내향형)는 갈등관리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내향형에 비해 외향형이 갈등관리 유형 중 협력 점수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태도지표(EJ,EP,IJ,IP)와 E,I,J,P 각각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F,T,J,P 각각의 지표와 FJ,FP,TJ,TP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은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는 다르므로 3,4코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MBTI 의사결정기능 유형(F,T)과 외부생활 대처양식(J,P)을 조합해서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하나의 코드로 된 지표(E/I, S/N, F/T, J/P)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차이와 두 개의 코드가 조합된 지표(3,4코드 조합, 태도지표)에 따른 갈등관리 유형의 차이를 비교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이 MBTI지표 별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지표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확인하여 갈등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갈등관리유형은 협력형 3.83점, 타협형 3.74점, 양보형 3.66점, 회피형 3.26점, 지배형 3.10점 순이었다. 갈등관리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학점이 3.5이상인 경우 3.5미만보다 타협형이 높았다. 갈등관리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MBTI지표는 내향형(I)은 외향형(E)보다 회피가 높았다. 의사결정기능 유형(T,F)의 경우 감정형(F)이 사고형(T)보다 양보와 회피가 높았고,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지배가 높았다. 외부생활 대처양식(J,P)의 경우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양보와 협력이 높았다. MBTI의 심리기능유형에서는 NF형이 ST형보다 양보가 높았고, SF형이 ST형보다 회피가 높았다. MBTI 의사결정기능 유형(F,T)과 외부생활 대처양식(J,P)을 조합해서 갈등관리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FJ형이 FP형 보다 협력이 높았

다. 양보는 FJ형이 TP형보다, 회피에서는 FJ형이 TJ형보다 높았다. MBTI의 태도지표는 EJ형이 EP형 보다 협력이 높았고, IP형이 EP형 보다 회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MBTI 성격유형별 갈등관리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 MBTI 지표 및 성격유형별 갈등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B. Kwon, S.H. Yun, H.Y. Ahn, M.H. Kwak, "Conflicts Experienced by the Nurses in Hospital Nursing Organizations", J Korean Acad Nurs Adm, Vol. 25, No. 5, pp. 499-509, December, 2019. <https://doi.org/10.11111/jkana>.
- [2] S.Y. Kim, K.K. Kim, "Relationship of Conflict Management Style, Professional Autonomy,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Adm, Vol. 24, No. 5, pp. 387-395, December, 2018.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5.387>
- [3] N.K. Kim, G.Y. Cho, "Correlation between Conflict Manage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in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3, No. 2, pp. 771-786, April, 2021.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2.771>
- [4] M. A. Rahim,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6, No. 2, pp. 368-376. 1983.
- [5] K. W. Thomas, "Introduction to Conflict Management", 2002,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6] B.S. Kim, "TA Study on the Top Executives' Personality and Conflict Handling Modes: MBTI and TKI", Journal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Vol. 31, No.2, pp. 29-54, June, 2007.
- [7] J.T. Kim, H.S. Shim, "MBTI Form manual", 2013, Seoul: Asesta
- [8] C. G. Jung, Psychology types(H. G. Baynes, Trans. revised by R. F. C. Hull). Volume 6 of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9] Y.M.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 Types Using MBTI,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 Performance, and Conflict Handling”,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 4, No. 4, pp. 239-263, December, 2016.
- [10]J.H. Pak, “The Relationships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ssertiveness Training to Assertiveness Behavior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The Journal of the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3, pp. 556-565, 2002.
- [11]Y.M. Pak, “A Study on Personality Type and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and Development*, Vol. 28, No. 1, pp. 1-30, 2019. <https://doi.org/10.18350/ipaid.2019.28.1.1>
- [12]F. E. Faul,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49-1160, 2009.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13]J.T. Kim, H.S. Shim, “A validit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MBT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 No. 1, pp. 44-72. June 1990.
- [14]S.Y. Kim, K.K. Kim, “Relationship of conflict management style, professional autonomy,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 5, pp. 387-395. 2018. <http://doi.org/10.11111/jkana.2018.24.139>
- [15]H.J. Jang, Y.J. Lee, “Th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2, pp. 77-83, May, 20218. <https://doi.org/10.17703/JCCT.2021.7.2.77>
- [16]N.K. Kim1, G.Y. Cho, “Correlation between Conflict Manage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in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3, No. 2 pp. 771-786, April 2021.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2.771>
- [17]I.R. Choi, H.W. Kim, E.J. Ah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9, No. 2 pp. 94-101, April 2019.
- [18]E.Y. Baek,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nflict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eachers”,
- Master’s Degree Dissert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4.